



1 북성교회를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경춘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춘천 못 미쳐 나오는 지역이 가평입니다. 북성교회는 가평군 북면 활약산로 44번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성교회는 1961년 1월에 설립되어 2023년 설립 62주년이 된 오랜 역사를 지닌 장로교 통합측 교회입니다. 조영규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장년 80-90여명, 교회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각 10여명 정도 모이는 전형적인 시골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북성교회의 5대 실천목표

- ①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교회
- ②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 ③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 ④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교회
- ⑤ 성숙한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2 북성교회의 지역선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가평은 마을 전체가 산신제를 드리고 있고, 한국의 이단종교들인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에덴성회의 본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 사회가 되어 교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북성교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행사, 개인 가정의 경조사, 위급한 재난 발생시 사랑의 봉사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늘 기도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교회적 소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아시아빈곤선교센터 캠프와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나요?

이철용 대표와는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소식을 듣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의 관건은 선교사의 선교적 사명과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용 목사님은 가식없이 정직하게 주어진 소임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정말 든직한 선교일꾼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자신의 특성과 은사를 잘살려 자립 주도형 선교사역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소식을 듣고 북성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4 자립선교에 대한 응원의 말씀!

선교의 목적은 자립입니다. 성숙한 인생의 목표가 자립인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특징도 네비우스 자립선교 사역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전, 한국교회의 선비사상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현재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자립선교 정신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행해지는 자립선교는 아직 쉽지 않지만,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사역의 동반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립선교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한 선교정책입니다.

5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한 말씀!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뉴스레터를 읽고 있으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보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캠프의 필리핀 사역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과 도전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힘찬 박수로 선교현장에 동참하십시오.